

스타들과 함께 게임·식사... '2시간40분의 행복'

2030부터 꼬마 팬까지 84명 동행
처음엔 어색...게임하며 벽 허물어
선수들 팬 찾아가 사인 '기쁨 두배'

KBL이 올스타전을 통해 팬들 곁으로
한 걸음 더 다가섰다.

프로농구 최고의 축제, 프로농구 올스타
전이 지난 20일(일) 창원 실내체육관에서
열렸다. KBL 역사상 창원에서 첫 번째로
개최된 이번 올스타전은 올스타전의 시작
부터 끝까지 팬들의 곁으로 한발짝 다가가
려는 KBL의 노력이 돋보였다.

올스타전의 시작을 알리는 투표부터 달
랐다. 투표 방식은 전년대 동일했지만, 투
표 기간 동안 10개 구단 주요 선수들이 울
동과 노래를 부르며 팬들에게 본인을 어필
했다. 기존에는 각 구단 중심의 투표 독려
가 이벤트 형태의 독려였다면 이번 올스타
전의 투표 홍보 방식은 팬들에게 투표 기
간 자체가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
게 만들었다.

특히 '아놀드 댄스'를 따라한 김중규, 아
기상어 율동을 보여준 양홍석, 군대가기
전에 올스타 뿔아달라고 간절히 외친 정효
근 등의 선수들은 실제 영상이 입장 퍼포
먼스로 이어지며 그 열기를 올스타전 현장
까지 가져오게 됐다.

올스타 전날인 19일(토)엔 서울역-창원
행 '팬사랑 올스타 열차'가 서울역을 출발
했다. 이 열차엔 미리 신청한 84명의 팬들



팬들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갔던 KBL과 선수들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. 20일의 올스타전은 스타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완성한 '진짜 농구축제'의 장이었다. 19일 창
원행 농구열차에서 팬들과 풍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김선형(왼쪽사진 왼쪽)과 박지훈. 정효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팬의 표정이 흥미롭다. 사진제공 | KBL

과 올스타전에 참가할 스타들이 함께 했
다. KBL에서 2년 전 마련한 '부산행'에 이
은 특별 이벤트였다. 84명의 팬들은
20,30대 젊은 팬부터 부모들과 함께 온 꼬
마 팬까지 다양했다. 처음엔 어색했다. 그
러나 가위바위보 게임 등 벽을 허무는 행
사와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스타들과 가까
워졌다. 특히 폐활량 게임과 풍선게임은
팬과 스타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. 종착지
인 창원 도착을 앞두고 선수들은 열차를
지나다니며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포토
타임도 가졌다. 2시간40분의 시간이 눈 깜
박할 사이에 지나갔다.

창원에 도착한 뒤 진행된 팬 사랑 페스

티벌과 무빙 올스타 일정까지 이어지는 빠
빠한 일정 속에서도 선수들은 노력했다.
특히 무빙올스타 현장에서는 비가 오는 곳
은 날씨 속에서 야외에 모인 팬들을 위해
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인과 사진
촬영에 임했다.

KBL 올스타전의 백미 입장 퍼포먼스 역
시 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. KBL SNS 채
널을 통해 500여명의 팬들에게 받은 다양
한 의견을 토대로 올스타전에 출전하는
24명의 올스타 선수들의 입장 퍼포먼스가
정해졌다. 땀땀한 일정 속에서 율동을 배워
야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수들은 "이왕
하는 거 제대로 하자"며 집중력 있게 연습

시간을 소화했고, 실제 올스타전에서 멋진
퍼포먼스로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.

올스타전 경기 당일에도 팬들과 선수들
의 스킨십은 계속됐다. 경기 시작 전 야외
광장에서 프리허그 타임과 분식, 커피를
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경기 전부터 경
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.

팬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KBL의 노력
이 지금 가장 많은 것을 바꿀 순 없다. 하지
만 이번 올스타전처럼 KBL이 팬들의 목소
리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꾸준히 지속
된다면 농구팬들의 달아난 마음을 잡을 수
있지 않을까.

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@naver.com

첫 더블의 주인공, 프레스턴을 아시나요

〈현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〉

1889년 리그·FA컵 동반 우승 달성
독립적 프로리그 도입에도 큰 영향

FA컵은 잉글랜드축구협회(FA)에 속한
모든 클럽들이 겨루는 대회다. 1부리그 프
리미어리그부터 시작하여 지역 아마추어
리그까지 12개의 리그팀이 참여한다. 상위
리그에 속한 클럽들은 늦게 경기를 시작하
다. 최근 진행된 3라운드부터는 프리미어
리그 클럽들이 참전하면서 본격적인 경쟁
이 시작됐다.

FA컵은 더블을 노리는 프리미어리그

상위클럽들에게 중요한 대회다. 일정이 빠
빠하지만 적극적인 유망주 기용과 로테이
션으로도 충분히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
있다. 잉글랜드 최초의 더블 달성팀은 놀
람게도 잉글랜드 풋볼리그(프리미어리그
의 전신)가 시작된 첫 시즌(1888-89시즌)
에 나왔다. 지금은 잉글랜드 챔피언십(2부
리그)에 속해있는 프레스턴 노스 엔드 FC
가 그 주인공이다.

풋볼리그 이전 잉글랜드에는 FA컵만이
존재했다. FA는 1882년 프로선수를 공식
적으로 금지했고, 구단은 선수들이 지출한
비용을 갚아주는 것만 허용했다. 그러나 상

대 팀이 직업선수를 투입했다는 제소가 넘
쳐났고, 결국 1884년 프레스턴을 비롯한
몇몇 클럽이 FA컵에서 실격당하면서 갈등
은 최고조에 달했다. 당시 클럽 유력자 메
이저 서덜은 조사위원회에서 공격적인 자
세를 취하기 시작했다. 선수 재정 지원을
솔직하게 시인했지만, 선수들에게 보수를
지급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관행
이라고 밝힌 것이다. 그러면서 어째서 자기
클럽만 징계하느냐고 FA를 비판했다.

서덜의 솔직한 발언은 FA 임원진에 큰
충격을 주었다. 결국 논의 끝에 프로페셔
널리즘이 제한적으로 합법화되었다. 그러
나 클럽들은 프로페셔널리즘을 꺼리는 FA
를 납득하지 못했다.

당시 FA의 사무총장은 시대의 징후를

간파했다. 축구의 인기를 위해 프로 구단
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. 결
국 1888년 FA의 감독 하에 독립적인 프로
리그 도입이 합의되었다.

풋볼리그 첫 시즌, 대부분의 클럽은 리
그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. 하지만 프레스
턴은 리그와 FA컵 모두를 진지하게 여겼
다. 풋볼리그의 첫 시즌을 맞아 프레스턴
은 리그에서 무패우승을 달성하는 동시에
FA컵까지 거머쥐었다. 프로 문제를 들끓
게 한 클럽이 세계 최초의 무패우승 및 최
초의 더블 달성 클럽이 된 것이다. 프로 축
구 도입에 큰 영향을 준 프레스턴에게는
더욱 값진 순간이었다.

서서빈 대학생 명예기자(연세대 사회학과)

smallbeen@naver.com

〈인터미란 공격수〉

이카르디 몸값 천정부지 이적시장 '제3자의 횡포'

인터미란의 공격수 마우로 이카르디
(26)의 에이전트는 완다 나라, 즉 그의 아
내다. 완다는 최근 인터미란에게 약 155억
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요구했다. 이는 세
리에A에서 최고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.
현재 이카르디에게는 해외 구단에게만 적
용되는 약 1400억원의 바이아웃이 책정되
어 있다. 구단이 바이아웃 삭제를 요구하
자 오히려 바이아웃 인상을 원한다며 재계
약을 제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.

남미 선수들이 이적시 높은 몸값의 이유
는 대부분 TPO(Third Party Ownership)
때문이다. TPO란 투자회사 또는 에이전트
가 구단을 대신하여 돈을 지불해주고, 선
수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.

문제는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때
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이적료의 일부를 지
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뛰게 되는 것
이다. 2006-07시즌 카를로스 테베스와 하
이에르 마스체라노가 TPO로 인해 이적한
대표적인 예시다. 두 선수의 소유권을 가
지고 있던 MSI라는 에이전트 회사는 웨스
트햄 유나이티드 인수 계획 속에 두 선수
를 이적시켰다. 시즌 종료 후 웨스트햄에
밀려 강등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두 선수
의 소속이 구단이 아닌 MSI에 더 가깝다는
것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했고, 웨스트햄은
발급형을 받았다. 그 후로 FA는 제3자 소
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.

신동현 대학생 명예기자(고려대 영어영문학과)

renydh93@naver.com

편집 | 고정일 기자 ico@donga.com

2019년 겨울의 맛을 입다! 지금이 마지막 파격세일!

2019 Winter
Outdoor Sale

퀵팅기모집업 자켓#5000

앞뒤판은 도톰한 패딩으로 팔과 목은 부드러운
기모로 제작된 퀵팅집업자켓!
하나만 입을 수도 겹쳐 입을수도 있는 1석2조 아이템

그레이



퀵팅기모집업자켓 1장

98,000 → 파격세일 **29,800원** (택배비 2,500원 구매자 부담)

네이버



사이즈

95/100/105/110

블랙



색상

그레이/네이버/블랙

하이브리드경량 패딩자켓#5233

생활방수 및 방풍기능이 뛰어난
하이브리드 경량 자켓
실내외 착용 가능한 모델



하이브리드 자켓 1장

132,000 → 파격세일 **39,800원**
(택배비 2,500원 구매자 부담)

브랜드 uhlsport

사이즈

85/90/95/100/105/110

카키

